

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

-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시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9월 13일(금)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.

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(KTAS 1-2등급)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,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,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*를 지정하였다.

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간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게 된다. 보건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 목적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.

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“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국민 여러분들이 응급 현장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붙임>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명단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	책임자	과 장	송영조 (044-202-2550)
		담당자	사무관	조호식 (044-202-2557)
		담당자	사무관	고혁준 (044-202-2554)



지역	선정 기관
서울	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
	노원을지대학교병원
부산	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
인천	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
울산	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
경기	한양대학교구리병원
	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
	부천세종병원
충북	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
충남	아산충무병원
전북	대자인병원
경북	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
경남	창원한마음병원
제주	제주대학교병원

* 신청기관이 없는 대구, 광주, 대전, 세종, 전남은 미지정